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어린이 제목 :아이의 마음에 있는 미련을 쫓아내라

성경: 잠언 22장 6,13-18절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13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면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쫓기겠다 하느니라

14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16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17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지어다

18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잠22:13-18)

잠언에는 지혜로움과 미련함에 대해 많이 언급되어 있다.

미련함의 피해는 막대하다.

미련함은 거의 재앙의 수준이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19:13)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잠 17:25)

그러므로 결코 아이를 미련하게 방치하면 안된다.

사람은 교육적 존재. 그러므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 미련함은 껍질과 같아서 가르칠 때 아이의 미련이 벗겨진다.

가르칠 때 누가 제일 중요한가? 아버지. 그 다음이 어머니. 그 다음

이 선생님. 아버지는 선생님을 잘 선택해서 교육을 위임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잘 배웠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방치해도 스스로 배운다. 그것을 learn이라고 한다.(우연히 배우고, 좌충우돌하며, 엉뚱하게 배우기도 한다. 잘못되면 취향이 왜곡될 수도 있으며, 악한 것도 배우게 된다. learn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러나 저절로 배워지는 것도 많다. 삼라만상이 대상)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미련을 제거하고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고,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한다. Education. (선생님과 학생)

관계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교육을 훈련, 또는 코칭이라고 한다.
이것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교정을 포함해서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흥금을 터놓고 하는 것으로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22:6)

교육은 마땅한 것이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 특히 한국은 이것을 잘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의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13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시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교육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게으름이다. 게으르면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 부지런함부터 가르쳐야 한다.

14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이란 중독을 말한다.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왜냐면 깊은 함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큰 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방치하시기 때문이다.

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 아이의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은 얼마든지 미련할 수 있다. 그 미련이 결국은 그 아이를 괴롭힌다. 천성이나, 성격이 아니다. 이와 같다. 부모가 세심하게 교정하고 다듬어서 잡아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축귀)

이때 부모는 필요에 따라 채찍도 사용해야 한다. 어떤 것은 채찍이 아니면 떨어져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미련 마귀는 채찍으로 멀리 쫓으라.

미련이 얽히는 이유는? 지식이 정확하지 않아서. 욕심이나 두려움이 눈 앞을 가리기 때문에. (뇌세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이때 부모의 채찍이 필요하다. 아이를 사랑하면 채찍질한다. 아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손찌검으로 화풀이를 한다. 폭력과 채찍질은 엄연히 다르다. 채찍질은 아이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다.

왜 회초리를 드는지, 얼마나 아플 것인지, 몇 대를 맞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잘 이해시킨 다음에 성실하게 타협함없이 채찍질을 하면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고 미련이 벗겨진다.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취향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있는데도 방치된 채 나이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때는 코칭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성인이 되고서도 바로잡혀지지 아니하면 (짜을 찾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일터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성인으로서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부족함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적인 리더에게 코칭을 받고 잘못된 지식이나 취

향이나 태도나 행동들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채찍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는 무난하다고 여기는 것이 부끄럽고 교만한 것이니, 항상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이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채찍을 감사히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성경공부 제목: 말씀: